

###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선정 '환영' 목소리 잇따라

# 전북자치도 “협력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각종 공동 협력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지역 전문인력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은 쾌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선정된 387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첨단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업 통해 적극 유치활동 벌여

지역 국회의원과 연구소 유치 강력한 의지 표명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 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반도체소부장)’, 30여년 동체공동연구소 지정은 쾌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도는 전북대의 반도체공동 연구소 선정을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 전략회의,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기자회견, 관련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었다.

한병도, 신영대,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는 2028년까지 반도체 연구소 건립비와 기자재비 등 총 44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에 63억원의 대응자금을 지원하며, 전주시 30억원, 완주군 15억원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주 시민·전북자치도민의 승리”

민주 정동영 의원, “계속해서 전북 발전 위해 정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23일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전북대에 유치됐음을 알렸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정부에서 반도체 인프라 구축, 수도권 인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심대학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권역별 연구소를 지정하고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여섯 개 국립대가 신청했으며, 전북·강원·충북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면평가를 토대로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전북대가 최종 선정대학으로 확정됐다. 선정대학은 공동연구소 건립비 164억원과 장비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산자부·교육부와 협의의 장을 통해 전북대의 반도체물성연구소 및 공정연구센터의 캠퍼스 등을 알리고, 지난해에도 반

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반도체산업 육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찾아가 설득하는 등 여야를 넘어선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전북대가 반도체산업 육성의 핵심대학이라는 것을 알렸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 또한 사업 유치 프리젠테이션을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이 이달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월립’ 기자회견을 갖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기폭제를 마련할 기회를 달라’,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전북의 전북대에 유치돼야 한다’, ‘전북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북대의 승리”라며, “반도체 공동연구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를 구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북대의 인재들은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포함한 우수한 인프라에 목말라 있다”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월립’ 팀장으로서 힘을 모은 결과 낭보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 ‘월

립’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로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 유치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관광객 1억명 유치 여름 휴가철 이벤트 등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목표로 한 ‘관광객 1억명 유치’ 달성을 위해 여름휴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외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휴가철인 7~8월 중 위케이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선 테마 관광상품 운영,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방문 SNS 이벤트 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일(work)과 여행(vacation)이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위케이션 관광 상품을 운영한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참여 근로자 전용 온라인 ‘휴가샵(vacation.benepia.co.kr)’에서 전북 여행상품구매 시 추가 5만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명소를 활용한 3개 테마별(미식, 역사, 펫) 코스를 개발해 1박 2일 관광 상품도 운영한다. 전북에서만 체험 가능한 음식자원을 활용한 미식 코스,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쉬어가는 역사 교육 코스, 천만 반려인들이 여름휴가 기간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펫 코스도 구성된다.

더불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특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전주에서는 ‘한여름 가뭄마당(8월 10~17일)’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지역 기행 집단의 특화된 인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영화 속 음식을 즐기며 관람도 하는 맛있는 전주심야극장(3회, 8월 3일·10일·24일)을 운영해 관광객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미래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

김종훈 경제부지사, 기재부 방문

새만금 등 예산 반영 필요성 석득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를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국토, 산업, 농림, 알앤디 등 주요 부처 2차 심의를 앞두고 적기에 전북 국가예산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부지사는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과, 농생명 분야 사업, 그리고 전북 핵심동력인 바이오,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 새만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새만금 신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관공선 건조사업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개발형 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도 건 의했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미래방사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면담을 가졌다.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디지털트윈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초고속 충전 평가기반 구축 △홀로그래프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등 전북의 미래 산업을 이끌 주요 프로젝트들인 바이오, 미래 자동차, 하이퍼튜브, 이차전지, 홀로그래프 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주요 사업에 대한 반영 필요성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찰반은 7개 반 31명으로 편성되어 시군과 직속 기관, 사업소,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주요 감찰 내용은 근무지 무단 이탈,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대인행정 지연, 재산취약시설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으로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을 통해 적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특히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선출

전당대회서 전체 40만8272표 중 62.84% 얻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표결과 발표에서 한 후보가 전체 40만8272표 중 32만7102표(62.84%)를 얻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 나경원 후보는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는 1만9051표(3.73%)를 얻는데 그쳤다.

한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25만 5930표(62.65%)를 확보했다. 원 후보는 8만2449표(19.04%), 나 후보는 5만 5996표(14.59%), 윤 후보는 1만3897표(3.73%)를 각각 득표했다. 한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63.46%(환산 득표 6만4772표)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8.05%(1만8423표), 원 후보는 13.45%(1만3728표), 윤 후보는 5.05%(5154표)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중호 후보가 당선됐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하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단순히 시간 흐름에만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맡겨두지 않겠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헌원이 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뉴시스

### 민주, 국힘 전당대회 ‘전북 간첩’ 발언에

##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맹폭

한준호 의원 “전당대회 아니라 앞뒤려 사죄부터... 간과 못해”

한병도 의원 “제정신?...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냐” 날세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해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8·18 전당대회 후보들은 “헛소리한다” “정신 나갔다”고 맹폭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간첩 발언과 전라북도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간첩은 곧 전북이라는 뻣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런 정신머리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폭망한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헛소리나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북 출신 호남인인 제게도 간첩이라 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비하해놓고 어떤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민들을 향해 국민의힘

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앞뒤려 사죄부터 해야 한다.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 잘못된 생각과 오늘 일에 대해 전북도민들에게 앞뒤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뭐라고 또 변명을 하나 봐야겠다”며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출발을 알리는 전북 비하가 아주 걸출하다”고 직격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가세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제정신이나”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180만 전북도민을 비하한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 “봉동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반대”

권요안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군 봉동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원주2·더불어민주당) 지난 23일 오전 9시 전북지방환경청(송호성 청장)을 방문하여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완주군민의 강력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132.72톤/일, 지정폐기물 56.88톤/일 하루 약 189.6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정폐기물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과 완주군에 제출하고 지난 5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 말 사업자의 사전심사 청구 때부터 완주군은 관내 발생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전주시, 익산 소각장 처리가 가능



하고, 주민들의 절대적 반대경에 따라 소각장 설치 부동의 뜻을 충분히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완주군과 군민의 뜻을 무시

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지 등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고, 인근으로는 삼봉지구,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주민의 일상은 파괴되고 자연생태계에도 심각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은 “깨어있는 완주군민들은 상관된 의뢰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타산지석 삼아 행동할 것이다.”라며, “형식과 절차에만 매몰된 환경당국과 끝까지 투쟁해 봉동 사업장 소각시설 설치계획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